

2025.11.12
주간 제 448 호



중국창업
WEEKLY 뉴스 | CHINA 창업 | KIC 뉴스

발행처: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
전화:+86-10-6780-8840

센터장: 김종문
메일문의: info@kicchina.org

WEEKLY 뉴스

| | |
|---|----|
| 유니트리, '전신 원격 조작' 로봇 공개...인간 동작 실시간 재현 | P1 |
| 中 토름 원자로 세계 최초 성공...'우라늄으로 전환' | P1 |
| 中 자체 개발 톤급 무인 헬기 '보잉 T1400' 첫 비행 성공, 저고도 산업 변화 예고 | P2 |
| 中 5G-A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성화 봉송 주자로 데뷔 | P2 |

CHINA 창업

| | |
|-------------------------------------|-----|
| [산업분석] 2026 년 중국 자동차 10 대 기술 트렌드 분석 | P4 |
| [기업분석] L4 급 자율주행 기술 기업- 포니 AI(小马智行) | P15 |
| [기업분석] 샤오펑,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IRON' 공개 | P18 |
| [지역소개] 하다치 국가자주혁신시범구 | P23 |

KIC 뉴스

| | |
|---|-----|
| KIC 중국, 한국한의원연구원 이진용 원장 일행과 함께 베이징의료산업단지 방문 | P25 |
| KIC 중국 GSF 포럼 개최 | P28 |
| KIC 중국 창업대회 개최 | P29 |

행사 정보

| | |
|------------------|-----|
| 중국 과학기술 분야 행사 정보 | P30 |
|------------------|-----|

WEEKLY 뉴스

■ 유니트리, '전신 원격 조작' 로봇 공개...인간 동작 실시간 재현

11 월 6 일, 중국 로봇 기업 유니트리(UNITREE, 宇树科技)가 전신 원격 조작 플랫폼을 공개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사람이 원격으로 조작하면 유니트리 G1 로봇이 인간의 동작을 실시간으로 따라 할 수 있으며 복싱 스파링 같은 동작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로봇은 영상을 통해 인간의 전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모사할 수 있어 설거지, 로봇청소기 사용, 옷 정리, 물건 운반 등 일상적인 가사 노동도 가능하다.

한편, 중국의 또 다른 중국 로봇 기업 링차팡(零次方) 테크놀로지도 2024 년 유사한 기술을 선보인 바 있다. 해당사의 휴머노이드 로봇 Z1 은 사람의 동작을 관찰하여 공격 동작을 모사하고 방어 동작까지 수행할 수 있다. 이 기술은 링차팡의 핵심 알고리즘 중 하나인 '인간 영상 기반 학습(Learn From Human Video)'에 기반하고 있다. (출처: IT 즈자)

■ 中 토륨 원자로 세계 최초 성공...“우라늄으로 전환”

중국과학원(中国科学院)은 11 월 1 일 간쑤성(甘肃省) 우웨이시(武威市) 민친현(民勤县)에 건설한 토륨 용융염 실험로에서, 토륨을 원자로 내부에서 우라늄으로 전환하는 반응을 세계 최초로 구현했다고 발표했다. 이 성과는 토륨 자원을 활용한 원자력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한 성과로, 향후 토륨 연료의 상용화를 위한 과학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실험로는 중국이 독자적으로 연구, 설계, 건설한 4 세대 첨단 핵분열 시스템으로, 현재 전 세계에서 실제 가동 중이며 토륨 연료를 장입한 유일한 용융염로다. 이 설비는 토륨을 연료로 사용하고, 액체 불화물 용융염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안전성이 높고, 냉각수 없이 작동하며, 상압에서 작동하고, 고온의 열에너지를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2011 년 개발을 시작한 연구진은 소재, 계측기기, 장비 개발과 시스템 통합에 필요한 핵심 기술 전반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노심, 연료염 펌프, 열교환기 등 핵심 장치를 하나의 원자로 본체 내부에 통합하는 일체형 설계를 적용하여, 방사성 물질 유출 위험을 크게 낮추고 안전성을 높였다. 현재 이 토륨 용융염 실험로는 전체 부품의 90% 이상 국산화를 실현했으며, 핵심 장비는 100% 국산화를 달성하였고, 공급망을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 (출처: 중화망)

■ 中 자체 개발 톤급 무인 헬기 '보잉 T1400' 첫 비행 성공, 저고도 산업 변화 예고

10 월 30 일, 렌허항공그룹(联合飞机集团)이 독자 개발한 종렬식 무인 헬기 '보잉(铂影) T1400'이 하얼빈(哈尔滨)에서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비행은 톤급 무인기가 엔지니어링 완성 단계와 실제 운용 적용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소개에 따르면 보잉 T1400 은 최대이륙중량 1,400kg 의 종렬식 무인 헬기로, 최대 항속시간 8 시간, 최대 고도 6,500m, 최대 수평비행 속도 시속 180km 순항이 가능하다. 기체에는 이중 엔진, 다중화 비행제어 시스템, 고강도 복합재 구조가 적용되어 대형 적재가 가능한 넓은 내부 공간이 갖춰져 있으며, 지능형 제어 및 자율비행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업계는 이번 모델을 중국 내 '톤급' 무인 헬기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첫 상용화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대형 무인 헬기 분야에서의 핵심 기술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작업에 대응할 수 있는 운용 능력이 확보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저고도 산업 구조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보잉 T1400 은 8 급 강풍에 대응할 수 있으며, $-40^{\circ}\text{C}\sim 55^{\circ}\text{C}$ 의 혹한 혹서 환경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다. 또한 비, 눈, 모래바람 등 기상 변화와 산악, 도서, 사막, 설원 등 복합 지형에서도 전천후 작업과 이착륙이 가능하다. 기체는 기내 적재, 외부 슬링 운송, 투하 방식 등 운용 모드를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어 농림 방제, 긴급 구조, 산불 진화, 저고도 물류, 에너지 설비 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첫 비행식과 함께 개최된 '2025 렌허항공 글로벌 투자협력 설명회'에는 세계 각국의 정부, 학계, 산업 리더 300 여 명이 참석했으며, 현재까지 총 5 억 위안 규모의 수주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출처: 후난르보)

■ 中 5G-A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성화 봉송 주자로 데뷔

11 월 2 일, 제 15 회 전국체육대회 선전(深圳) 성화 봉송 현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과푸(Kuavo·夸父)'가 '0 번 주자'로 등장했다.

과푸는 세계 최초로 5G-A 기반 휴머노이드 성화 봉송 주자로, 팔에 1.6kg 의 성화를 든 채 100m 구간을 안정적으로 봉송했다.

이 로봇은 선전의 '러쥘(乐聚) 로보틱스'가 자체 개발한 모델로, 성화봉송 요청을 받은 뒤 단 1 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하드웨어 개조 없이 일반 양산형 그대로 투입됐다.

다만, 성화 봉송이라는 정밀하고 까다로운 조건에 맞추기 위해, 개발팀은 기존 양산형 '과푸' 플랫폼을 바탕으로 동적 모션 제어, 부하 균형 유지, 복잡한 환경 대응이라는 세 가지 핵심 영역에서 성능을 한층 강화했다.

러쥬 로보틱스에 따르면 성화 전달을 위해 높은 수준의 기술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회사가 하얼빈공대(哈尔滨工业大学) 및 베이징범용인공지능연구원(北京通用人工智能研究院)과 공동으로 팀을 꾸려 기존 양산 모델에서 운동 제어 소뇌를 업그레이드했다. 연구진은 신형 운동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해 '과푸'가 달릴 때 나타나는 보폭, 팔의 움직임, 무게 중심 전이를 실제 인간과 유사하게 조정하였다. 또한 1.6kg 성화를 들고 달릴 때 발생할 수 있는 무게 중심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하 균형 알고리즘을 최적화하였다.

차이나모바일은 5G-A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경로를 따라 20 여 개의 거점 시스템을 최적화했다. 20Mbps의 업로드 속도와 20ms의 지연 시간으로 안정적 통신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기술자가 실시간으로 로봇이 보내는 고화질 화면을 전송 받으면서 같이 뛰지 않고도 로봇이 보행, 달리기, 손 흔들기, 성화 전달 등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사실 러쥬 로보틱스의 스포츠 무대 등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 제 9 회 동계아시아 게임 성화 봉송에 참여한 데 이어, 선전에서 열린 제 34 회 탁구 아시아컵 대회에서는 왕추친(王楚钦), 쑤잉사(孙颖莎) 등 중국 대표 선수들을 응원하며 주목을 받았다.(출처: 21세기경제보도)

참고자료

- ▶ IT즈자(IT之家). 유니트리, '전신 원격 조작' 인간의 동작을 실시간 모사하는 휴머노이드 공개
<https://baijiahao.baidu.com/s?id=1848025973865269222&wfr=spider&for=pc>
- ▶ 중화망(中华网). 세계 유일! 중국 핵에너지 기술의 새로운 진전, 토륨 용융염 원자로 첫 가능 성공
<https://news.china.com/socialgd/10000169/20251101/48955697.html>
- ▶ 후난르보(湖南日报). '하늘을 나는 화물트럭' 등장, 중국 저고도 경제 '톤급 시대' 진입
<https://baijiahao.baidu.com/s?id=1847466379337665174&wfr=spider&for=pc>
- ▶ 21세기경제보도(21世纪经济报道). 세계 최초 5G-A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성화 봉송 주자 과푸, 제15회 전국체육대회 등장
<https://baijiahao.baidu.com/s?id=1847650845842948892&wfr=spider&for=pc>

CHINA 창업

[산업분석] 2026 년 중국 자동차 10 대 기술 트렌드 분석

최근 열린 제 32 회 중국자동차공학회 연례회의 및 전시회(第三十二届中国汽车工程学会年会暨展览会)에서 중국자동차공학회가 <2026 년 중국 자동차 10 대 기술 트렌드(2026 年度中国汽车十大技术趋势)> 를 발표했다.

이번 트렌드는 △고도화가 본격화되는 기술 △신규 양산 적용 기술 △시장 적용 규모 확대 기술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연구진은 120 개 기관 소속 378 명의 기업 전문가·학자·기술 실무자가 4 차례 조사와 공동 논의를 거쳐 도출했으며, 향후 3~5 년간 중국 자동차 기술 발전 방향을 다각도로 전망했다.

도표 1. 5 대 주요 기술 그룹 + 26 개 특화 주제

| | | |
|---------------|----------------|---|
| 자동차 제품 기술 로드맵 | 에너지 절약 기술 그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효율 파워트레인 • 탄소 제로 엔진 • 경량화 • 완성차 에너지 절약 |
| | 신에너지 기술 그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 배터리 • 연료배터리 • 전기 구동 시스템 • 차량-에너지 상호작용 및 인프라 |
| | 스마트 커넥티드 기술 그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형 운전 • 스마트 콕핏 • 넷스케이프 협업 • 클라우드 제어 플랫폼 • 지능형 네트워크 보안 • 지능형 네트워크 인프라 |
| | 공통 지원 기술 그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형 새시 • 전자 및 전기 정보 아키텍처 • 자동차 칩 • 차량 운영 시스템 |
| 자동차 제조 기술 로드맵 | 지능형 제조 기술 그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R&D • 디지털 생산 • 디지털 공급망(하드웨어) • 디지털 공급망(소프트웨어) • 디지털 마케팅 및 서비스 • 디지털 관리 • 저탄소 제조 |

트렌드 1: L3 조건부 자율주행 기술 체계 표준화 단계 진입

■ 기술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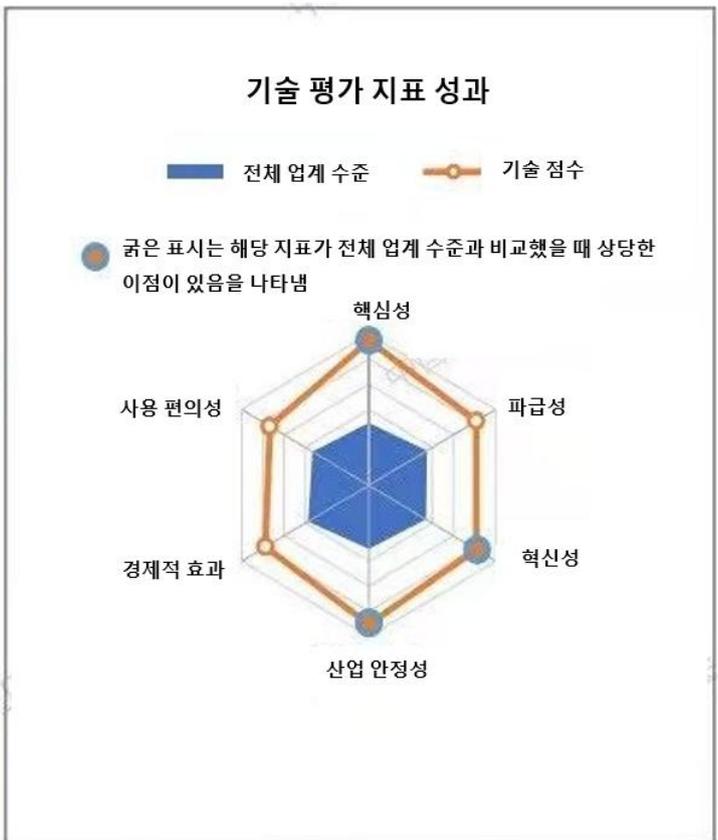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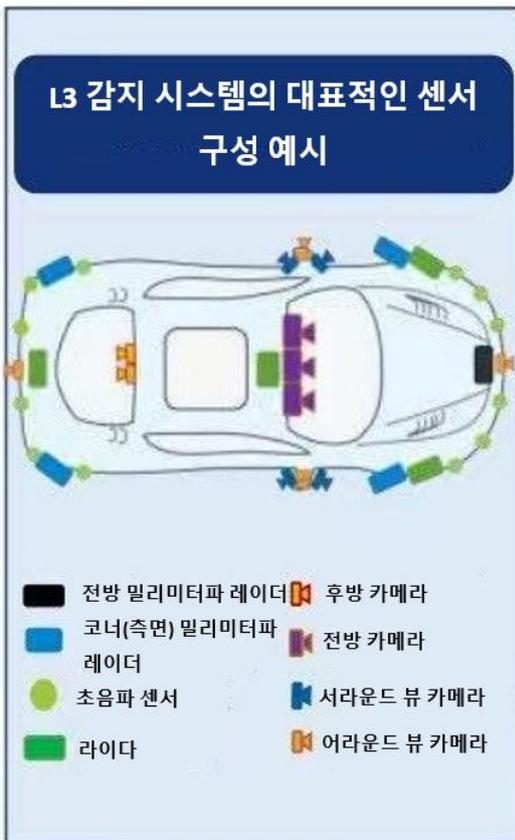
- 고도화 기술

■ 기술의 중요성

- L3 조건부 자율주행과 관련해 하드웨어, 알고리즘, 연산 체계의 통합 방식에 대한 업계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향후 L3 표준 법규 체계 마련의 주요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양산 적용과 안정적인 상업 운영 모델 구축을 위한 필수 기반으로 평가된다.

■ 기술 발전 트렌드

- 2026년 L3 조건부 자율주행은 기능 중첩과 사양 확장 중심의 구현 단계에서 벗어나 표준화와 효율화 중심의 기술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트렌드 2: 엔드투엔드 AI 에이전트 기반 스마트 콕핏 양산 진입

■ 기술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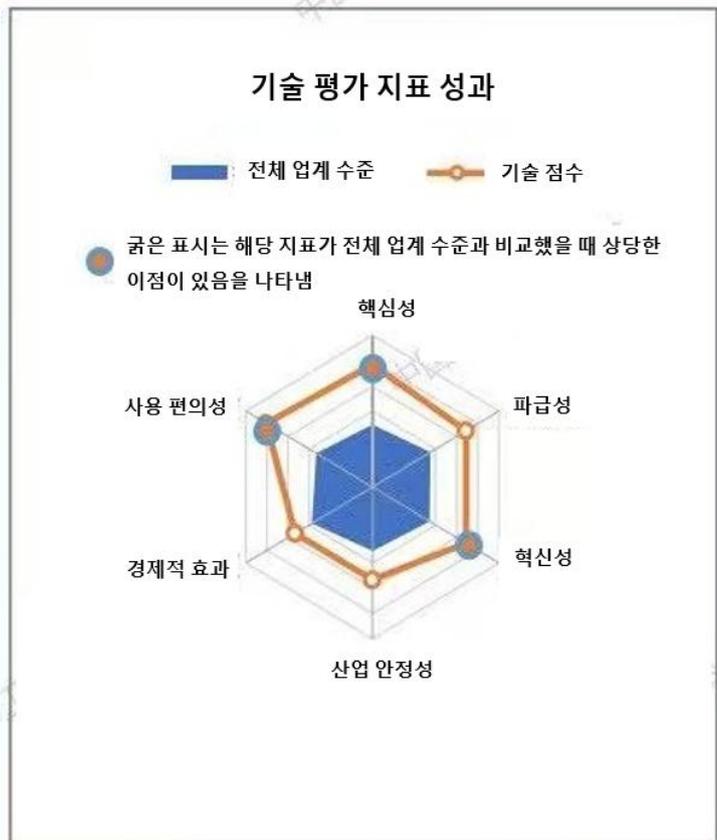
- 신규 양산 기술

■ 기술의 중요성

- 엔드투엔드 AI 에이전트가 적용된 스마트 콕핏은 멀티모달 센싱과 장기 문맥 추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 적응형'에서 '사용자 대응형'으로 경험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 발전 트렌드

- 2026 년은 엔드투엔드 AI 에이전트 기반 스마트 콕핏의 본격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은 앞으로 멀티모달 협업, 장기 기억, 다중 시나리오 대응 방향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트렌드 3: 고급 차종 HBM 칩 탑재 확대

■ 기술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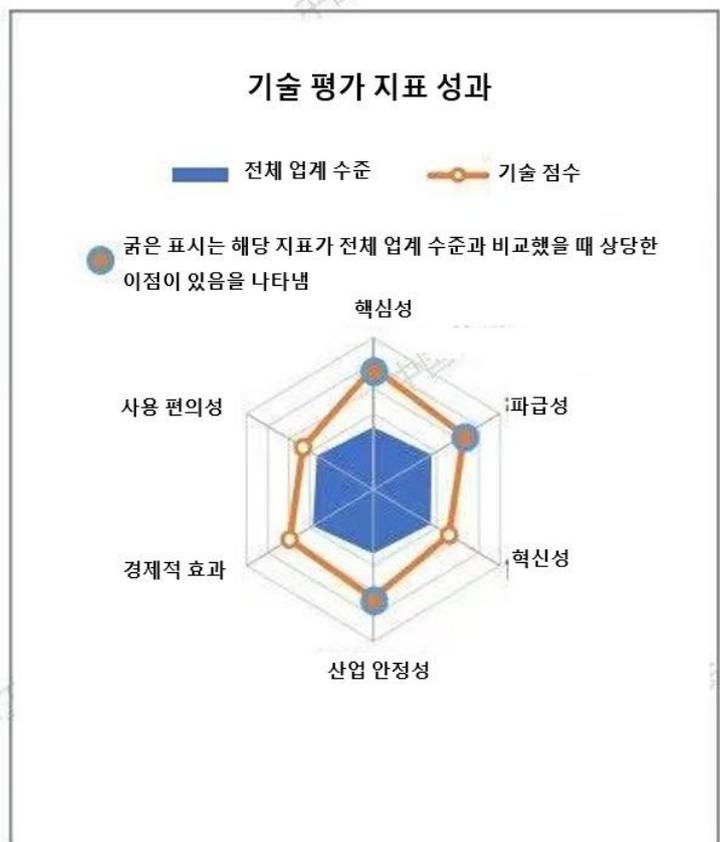
- 시장 확대 기술

■ 기술의 중요성

- HBM 칩은 초고대역폭, 저지연, 저전력, 고집적의 특성을 갖추고 있어, 복잡한 알고리즘과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고도의 자율주행 기능과 고성능 스마트 콕핏을 구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하드웨어로 평가된다.

■ 기술 발전 트렌드

- 2026년에는 고급 차종의 HBM 활용 비율이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트렌드 4: 메가와트급 초급속 충전 중·대형 전기트럭 100 종 이상 출시

■ 기술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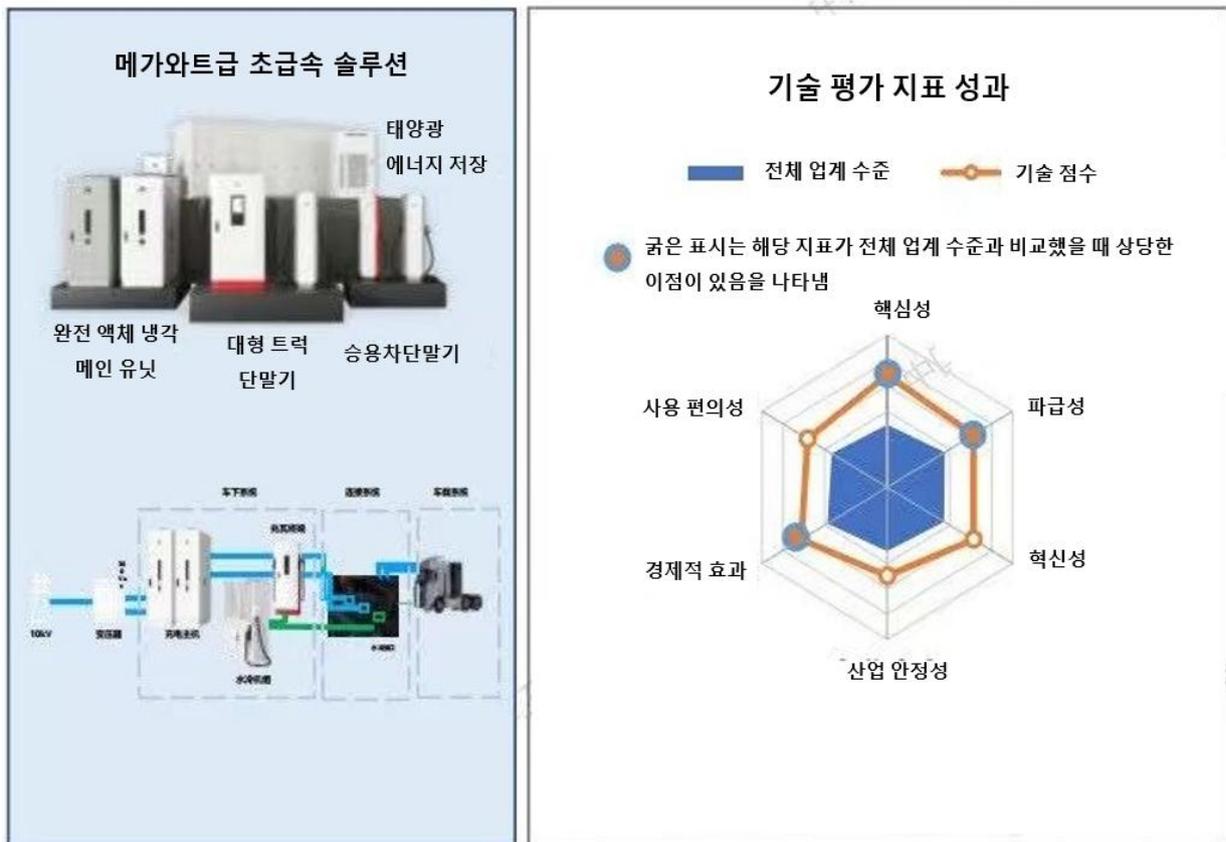
- 시장 확대 기술

■ 기술의 중요성

- 안정적인 메가와트급 DC 초급속 충전 기술은 호환성이 높고, 비용과 유지 부담이 적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는 상용 전기차의 충전 효율 한계를 개선하고, 상용화를 확대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 기술 발전 트렌드

- 2026년에는 메가와트급 초급속 상용 전기차 모델이 100 종 이상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렌드 5: 대용량 배터리 HEV 본격 양산

■ 기술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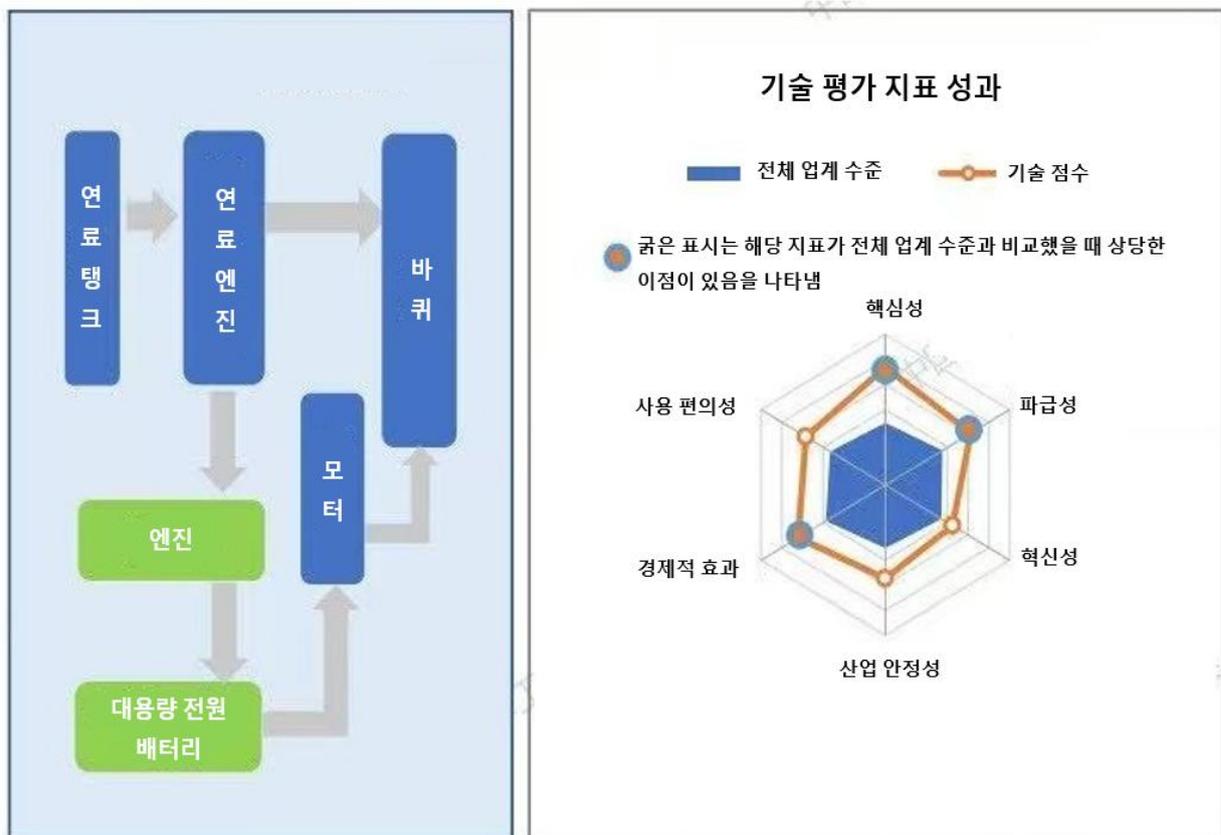
- 신규 양산 기술

■ 기술의 중요성

- 약 5kWh 급의 대용량 배터리는 고출력과 에너지 저장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며 HEV 차량의 응답성과 연비 효율 개선, 그리고 스마트 기능 확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으로 평가된다.

■ 기술 발전 트렌드

- 2026년에는 약 5kWh 급 배터리를 탑재한 HEV 모델이 중국 국내외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트렌드 6: 광온도 대응형 고효율 열펌프 시스템 탑재율 40% 돌파

■ 기술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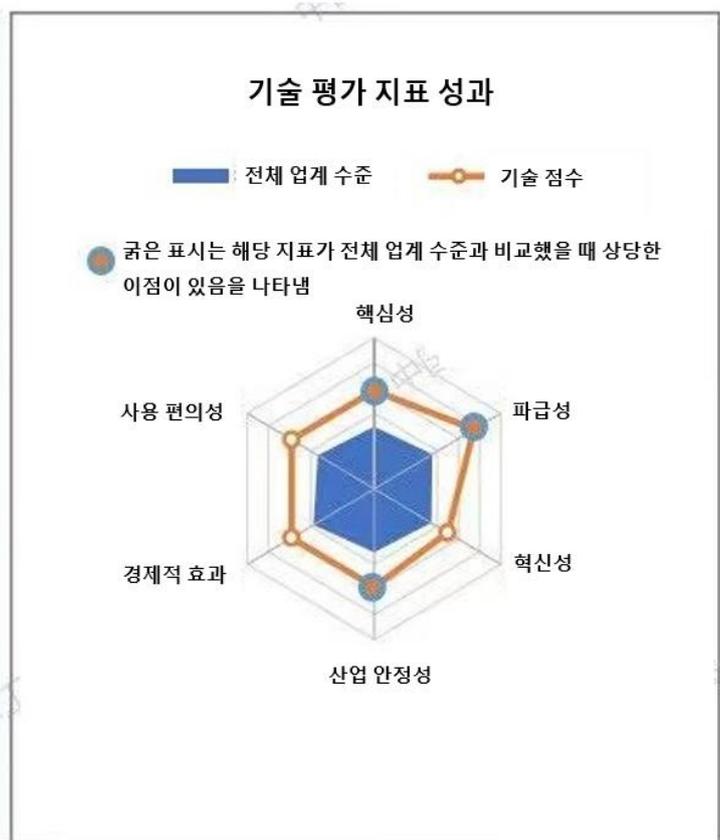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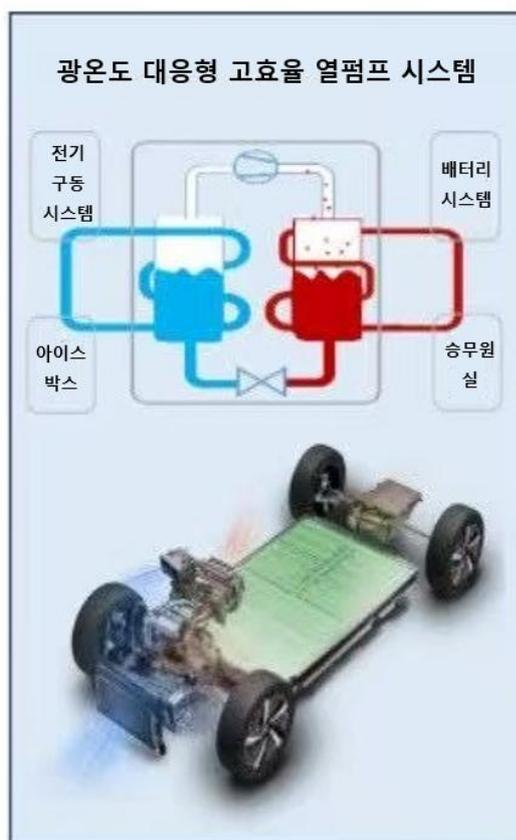
- 시장 확대 기술

■ 기술의 중요성

- 열펌프는 차량 열관리 효율을 높이는 핵심 기술로, 친환경 냉매 기반의 열관리 통합 제어 기술과 결합될 경우 저온 환경에서의 주행거리 감소를 40% 이상 완화하는 등 성능 한계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

■ 기술 발전 트렌드

- 2026년에는 고집적 열펌프 구조와 지능형 제어 기술의 적용 확대에 힘입어, 열펌프 시스템의 전체 차량 탑재율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트렌드 7: 분산식 구동·제어 시스템 통합 설계 기술 속성

■ 기술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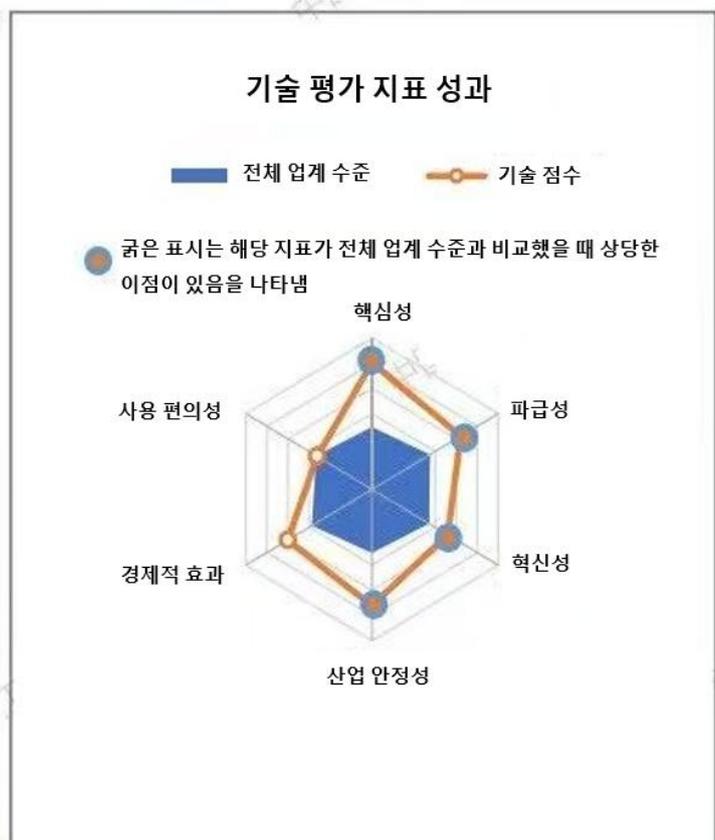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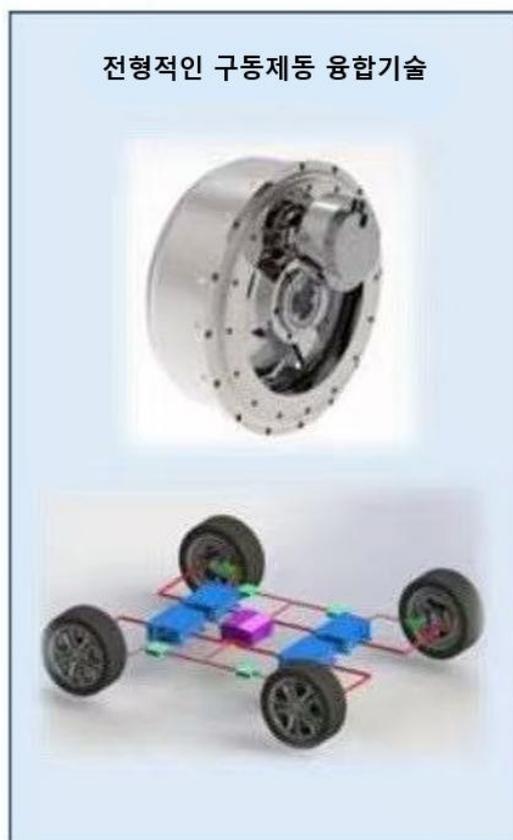
- 고도화 기술

■ 기술의 중요성

- 분산식 구동과 EMB 를 통합적으로 설계 및 제어하는 방식은 모터의 구동 및 차동 기능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여, EMB 와 상호보완적 운용이 가능해진다. 이는 차량 주행의 안정성과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 기술 발전 트렌드

- 2026년에는 기능 안전을 기반으로 한 분산 구동-EMB 통합 설계 기술, 모터 기반 미끄럼 방지 제어 기술이 성숙 단계에 도달하며, 분산식 구동·제동 시스템의 실차 탑재와 기능 검증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트렌드 8: 차량용 광통신 기술 실차 검증 단계 진입

■ 기술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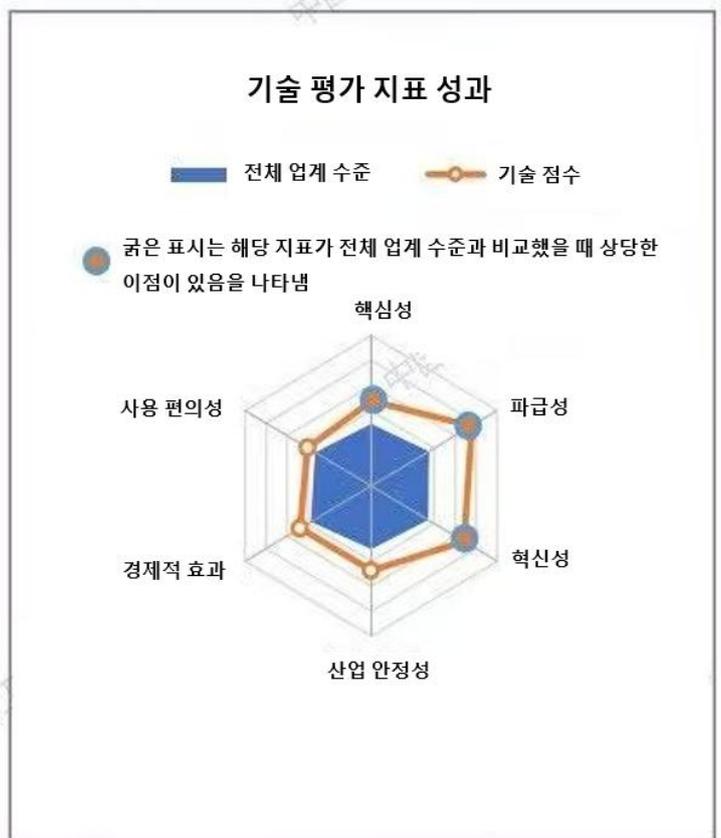
- 고도화 기술

■ 기술의 중요성

- 차량용 광통신은 초고대역폭, 저지연, 전자파 간섭 내성이 뛰어나, 고도 자율주행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와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향후 차세대 스마트 차량 통신 구조의 유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 기술 발전 트렌드

- 2026년에는 통신 칩, 프로토콜, 광학 부품, 연결 모듈 등 기술 발전에 힘입어, 차량용 광통신 기술이 처음으로 실차 검증 단계에 진입할 전망이다.



트렌드 9: 고체-액체 혼합형 배터리 탑재 규모 10만 대 수준 확대

■ 기술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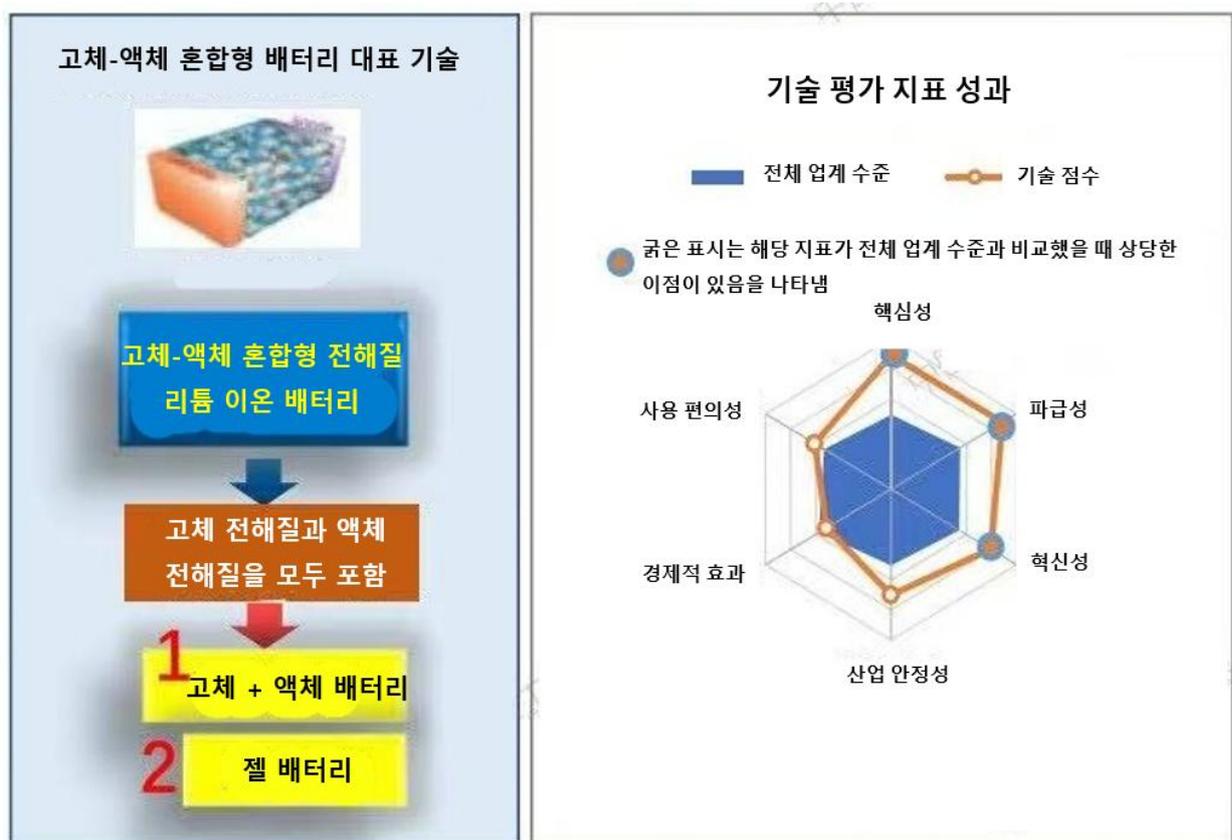
- 시장 확대 기술

■ 기술의 중요성

- 고체-액체 혼합형 배터리는 300~400Wh/kg 급 이상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를 양산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로 평가된다. 현재는 무기 전해질과 부분 고분자 전해액을 조합하는 방식이 대표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 기술 발전 추세

- 2026년에는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이 강화된 고체-액체 혼합형 배터리가 더 많은 차종에 적용되며, 시장 규모가 10만 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트렌드 10: 차·도로·클라우드 협력 기술 특정 주행 환경에서 상용화 시작

■ 기술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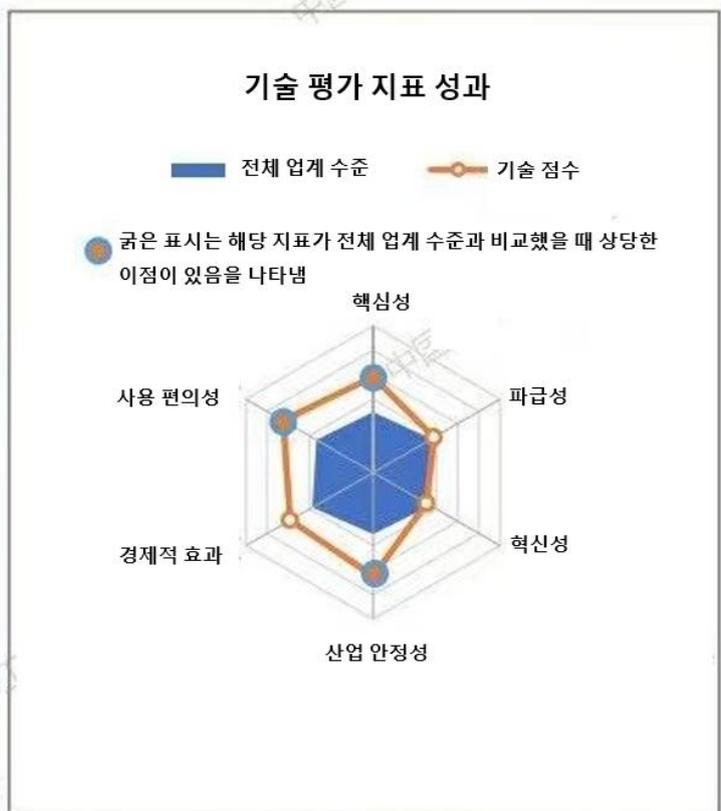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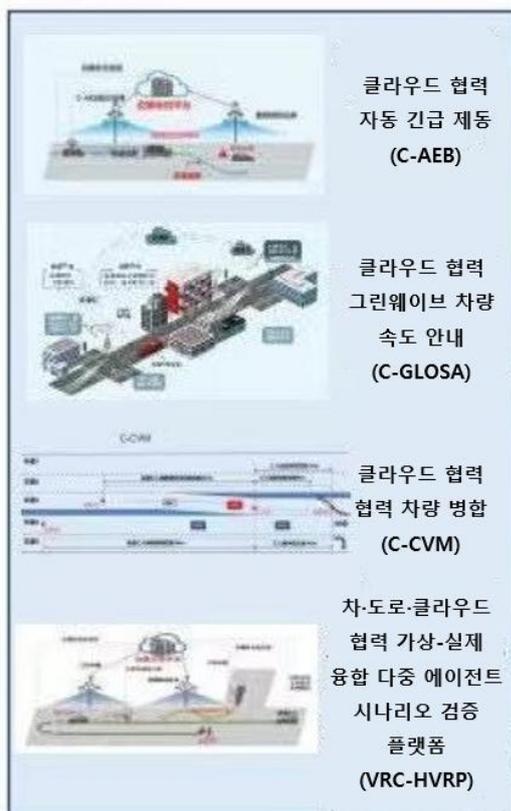
- 신규 양산 기술

■ 기술의 중요성

- 차·도로·클라우드 협력 기술은 공유 인지와 공동 판단 및 제어를 통해 스마트 커넥티드 차량의 주행 안전성을 강화한다. 이 기술은 단계별, 주행 환경별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점진적 적용 루트를 따른다.

■ 기술 발전 트렌드

- 2026년에는 차·도로·클라우드 협력 기술을 탑재한 모델의 양산이 시작되고, 일부 기능은 실제 주행 환경에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 ▶ 허레이-스마트 커넥티드 차량(何雷-智能网联汽车). 2026년 중국 자동차 10대 기술 트렌드(2026年度中国汽车十大技术趋势). (25.11.07)

https://blog.csdn.net/harry_helei/article/details/154069577

[기업분석] L4 급 자율주행 기술 기업- 포니 AI(小马智行)



기업개요

| | |
|-------|--|
| 기업 소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연도: 2016 년 • 창립자: 펑쥔(彭军), 러우텐청(楼天城) • 포지셔닝: L4 급 자율주행 기술 기업, 대규모 상용화 중심 전략 • 기술 핵심: 가상 운전자(Virtual Driver)와 월드모델(PonyWorld) |
| 사업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보택시(Robotaxi,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에서 유상 운행 서비스 제공 중, 7 세대 시스템 적용으로 70% 비용 절감, 2025 년 말까지 차량 규모를 1,000 대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 • 로보트럭(Robotruck, 자율주행 화물 운송): 시노트란스(中国外运)와 합작 법인 설립, 주행 거리 또는 적재 중량 기반 요금 정산 • 기술 라이선스 및 응용 사업: 도메인 컨트롤러 등 자사 개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 라이선스 제공, 최근 도메인 컨트롤러의 판매량 급증 |
| 사업 모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규모: 로보택시 720 대 이상, 로보트럭 170 대 이상 • 테스트 주행: 자율주행 누적 5,500 만+ km, 완전 자율주행 1,000 만+ km 달성 • 이용자 및 주문량: 로보택시 등록 이용자 53.2 만+ 명 |
| 실적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 현황: 2025 년 상반기 매출은 3,543.4 만 달러(전년비 +43.3%), 다만 높은 R&D 투자 비중으로 영업적자 지속 • 수익 구성: 로보트럭(매출 비중 약 50%), 로보택시(성장률 최고) • R&D 투자: 고강도 투자 유지, 2025 년 상반기 R&D 비용은 매출의 272.4% 차지 |
| 자본 시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증시 상장: 2024 년 11 월 27 일 나스닥 상장(로보택시 1 호 상장사) • 홍콩 증시 추진: HKEX 상장 청문회 통과, 미·홍콩 이중 상장 추진 |

글로벌 사업 전개

포니 AI(小马智行)는 여러 국가 및 지역에서 자율주행 테스트 및 운행 허가를 확보했으며, 도심 도로와 고속 도로에서 누적 자율주행 주행거리 3,500 만 km 이상을 달성했다. 복잡한 기상, 도로 조건에서 발생하는 롱테일 문제 대응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며, 대규모 상용화 제품 및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핵심 사업 및 상업화 전략

포니 AI 는 세 가지 사업 축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기술의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Robotaxi)

- **비즈니스 모델:** 탑승 요금 수익과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한 기술 솔루션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2025년 1분기 기준, 로보택시 매출은 전년 대비 200% 이상 증가했으며, 이 중 승객 요금 매출은 800% 증가했다.
- **비용 구조 개선:** 7세대 L4 자율주행 시스템에는 100% 차량용 부품이 사용되었다. 이는 하드웨어 비용을 전 세대 대비 약 70% 절감시키며 대규모 상용화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
- **파트너 확장:** 자체 운영 차량 외에도, 가오더(高德), 루치추싱(如祺出行) 등 모빌리티 플랫폼과의 연동을 통해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으며, 우버(Uber)와의 협력을 통해 중동 등 글로벌 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 자율주행 화물 운송 서비스(Robotruck)

- **매출 기여:** 해당 사업은 현재 기업의 가장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2024년 전체 매출의 53.8%를 차지했다.
- 시노트란스(中国外运)와의 합작법인 '칭주이 물류(青雅物流)'를 통해 물류 거점 간(창고-창고) 중장거리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운행 거리 또는 적재 중량을 기준으로 서비스 요금을 산정하고 있다.

■ 기술 라이선스 및 응용 서비스

- 해당 사업에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공급과, 자체 개발한 도메인 컨트롤러 '팡자이(方载)' 시리즈의 하드웨어 판매가 포함된다.
- 도메인 컨트롤러 판매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출하량은 2024년 2,940대에서 2025년 초 약 1.3만 대로 증가하며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핵심 기술

포니 AI(小马智行)는 세계적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상 운전자(Virtual Driver)'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기술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특정 차량 플랫폼이나 제한된 사용 환경을 넘어,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첨단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 표준화된 생산 체계 구축

포니 AI는 2020년 11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시스템의 표준화 생산 체계를 확립하고, 최신 버전 시스템을 위한 생산라인 가동을 통해 생산 효율을 이전 버전 대비 6배 향상시켰다. 공급망 연계, 24개 핵심 하드웨어 모듈의 자체 개발·생산, 차량 개조 및 최종 조립, 품질 검사, 출고 전 캘리브레이션과 도로 주행 테스트 등을 단일 프로세스로 통합함으로써, 제품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산업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는 자율주행 기술 양산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된다.

■ 전방위 안전 보장 체계

자율주행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포니 AI의 자율주행 차량은 ISO 26262 기반의 정방향 기능 안전 설계를 적용하고, 시스템 전반의 안전성과 중복 설계를 구축하였다. 포니 AI는 명확한 안전 기준선을 설정하고 있다. 단일 고장이 발생한 경우 차량은 안정적으로 주행을 지속해야 하며, 이중 고장 발생 시에는 차량이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어야 한다.

■ 차량 통합

포니 AI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승용차부터 중장거리 화물 트럭까지 다양한 차종에 적용되고 있다. 이는 차량 시스템과 플랫폼을 연동하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결과다.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하드웨어 툴 체계와 진단 및 예지 정비 시스템을 통해 운행 중 차량과 자율주행 시스템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인 자율주행 운영을 보장하고 있다.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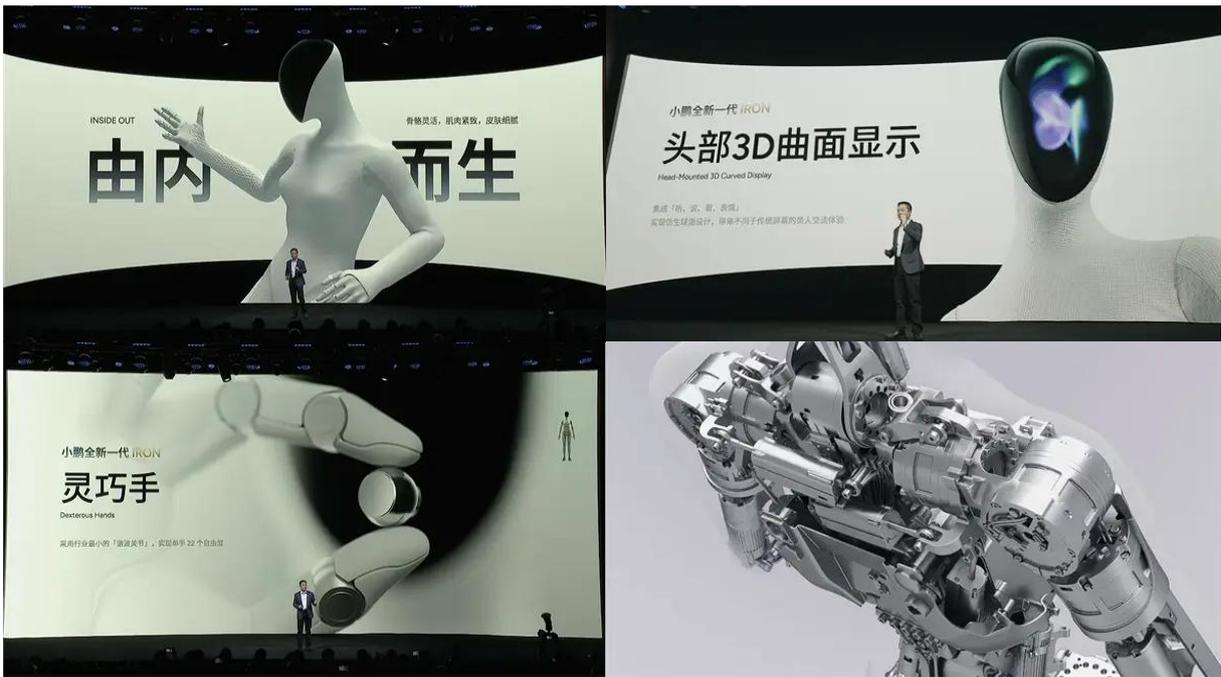
▶ 포니 AI 공식 웹사이트(小马智行官网). (25.11.06)

<https://pony.ai/?lang=zh>

[기업분석] 샤오펑,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IRON'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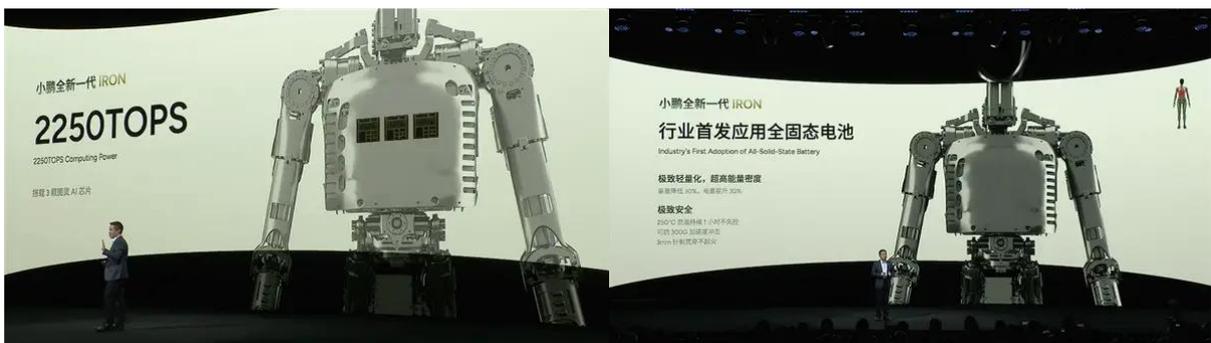
11 월 5 일 제 7 회 샤오펑 테크 데이(第七届小鹏科技日)에서 샤오펑(小鹏, Xpeng)의 신형 휴머노이드 로봇 '아이언(IRON)'이 공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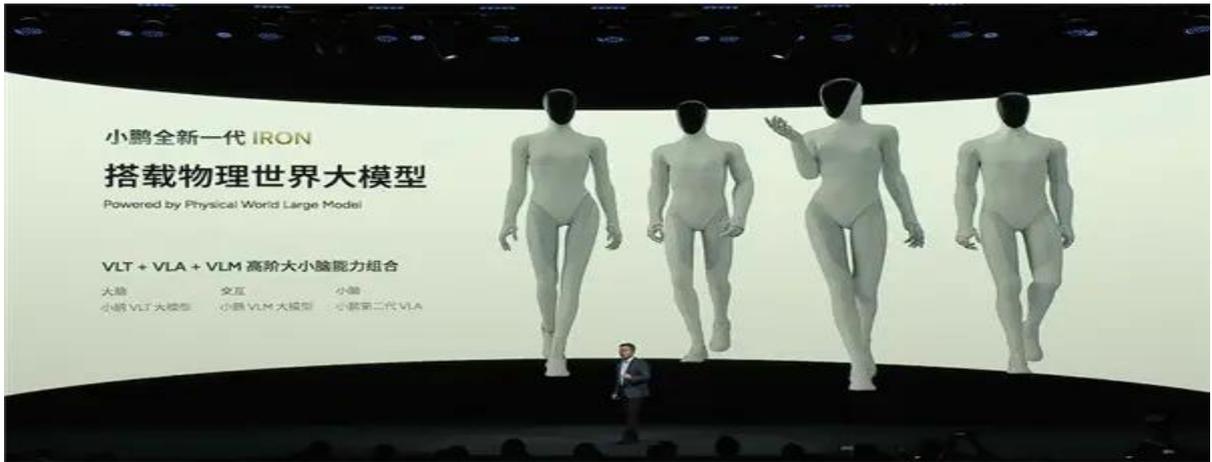
이번 신형 IRON 은 '뼈대-근육-피부'에 해당하는 인체형 기계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인간형 척추 구조, 바이오닉 근육 구조, 전신을 감싸는 유연 외피, 3D 곡면 디스플레이 헤드, 자연스러운 어깨 관절 움직임, 22 자유도의 로봇핸드 등을 갖추고 있다.



아이언은 AI 칩 튜링 3 개를 장착해 최대 2250 TOPS 의 연산 능력을 구현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화, 보행, 상호작용 등 고도의 지능 작업을 처리할 수 있으며, 전고체 배터리를 적용해 경량화와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이 로봇에는 샤오펑이 자체 개발한 물리 세계 기반 대형 모델 체계가 적용되어 있으며, VLT·VLA·VLM 세 가지 인지 모델을 결합해 환경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이해하며 대응할 수 있다.





이번 발표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이전처럼 거대한 비전을 내세우기보다는 실제 적용 가능성을 전제로 한 현실적 접근이 강조되었다는 것이다. 샤오펑은 스마트 자율주행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을 로봇에 체계적으로 응용하며, 샤오펑만의 실용적 로봇 개발 방안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아이언(IRON) 로봇의 핵심 강점

■ 지능형 감지 및 의사결정 능력

업계 분석에 따르면, 이번 신형 아이언 로봇은 다음과 같은 강점을 갖는다.

지능형 판단 능력 강화: 샤오펑은 자율주행 기술(XNGP)의 핵심 알고리즘을 로봇 시스템에 통합해 환경 인지와 행동 결정 능력을 한층 고도화했다. 이를 통해 로봇은 단순히 사전 설정된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수준을 넘어, 가정, 사무실 등 복잡하고 변수가 많은 공간에서도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수백만 대 규모의 스마트 차량 운영을 통해 이미 검증된 이 시스템은 아이언 로봇에 실시간 환경 감지와 의사결정의 기반 역량을 제공한다.



■ 유연한 동작 능력

동작 능숙도 강화: 차량 새시 및 전자제어 시스템 개발에서 축적된 샤오핑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균형 능력과 민첩한 움직임을 구현했다. 보행 안정성이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물건 잡기, 문 열기 등 손 동작의 정밀 작동 능력도 강화되어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 명확한 적용 시나리오

포지셔닝: 신형 아이언은 박물관, 4S 매장, 쇼핑몰 등 상업적 적용 공간에서 우선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샤오핑은 바오강(宝钢) 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아이언의 산업 현장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아이언은 바오강의 생산라인에 투입되어 설비 점검 등 복합 작업환경에서 실제 활용 시나리오를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기능 고도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시에 SDK를 전 세계 개발자에게 개방해, 휴머노이드 로봇의 응용 생태계를 함께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샤오핑 로봇의 개발 루트

■ 점진적 개발 과정

샤오핑의 로봇 사업은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한 명확한 성장 로드맵을 보여준다. 2021년 사족보행 로봇 '샤오바이룽(小白龙)'을 선보이면서, 샤오핑은 현명한 진입 전략을 통해 로봇 시장에 발을 들였다. 이 로봇은 이족보행 로봇이 겪는 균형 제어의 어려움을 우회하면서도, 운동 제어와 환경 인지 능력을 실질적으로 입증해냈다. 이는 이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의 핵심 기반을 마련하는 발판이 되었다.

샤오핑은 2022년 '1024 테크데이'에서 첫 자체 개발 휴머노이드 로봇 'PX5'를 공개했다. PX5는 이족 보행과 계단 오르내리까지 안정적으로 구현해, 샤오핑의 로봇 사업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이정표가 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로봇 사업은 기업의 핵심 전략 분야 중 하나로 격상되었다.



■ 기술 연계와 안정적 R&D 체계

주목할 점은, 샤오핑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기술 연계' 전략이 로봇 개발의 전 과정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샤오핑은 자율주행차 개발에서 축적된 시각 인지, 운동 계획, 실시간 제어와 같은 핵심 기술들을 로봇 연구개발에도 그대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동일 기술의 재사용은 로봇의 연구개발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했으며, 동시에 개발 비용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미래 전망과 도전 과제

■ 기술 상용화 전망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에는 높은 제조 비용, 복잡한 환경에서의 안정성 구현, 그리고 사용자 수용성 등 여전히 많은 난제가 남아 있지만, 샤오핑은 이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다음 달 예정된 신제품 발표에서는 최신 기술의 성과와 함께, 기업이 내세워 온 '기술의 보편적 확산' 전략의 실행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샤오핑이 지향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된 미래가 아니라, 기존의 스마트카 기술을 활용해 휴머노이드 로봇의 일상 적용 속도를 앞당기려는 것이다.

■ 도전 과제와 대응 전략

테슬라, 샤오미 등 빅테크 기업들이 잇따라 로봇 분야에 뛰어드는 가운데, 샤오핑은 스마트주행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 역량과 현실적인 추진 전략을 앞세워, 미래 경쟁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확보하며, 자신만의 차별적 경쟁력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소후망(搜狐网). 모델처럼 걸을 수 있다! 샤오핑 전고체 배터리를 사용하는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IRON 을 공개 (会走猫步! 小鹏发布新一代人形机器人 IRON: 用上全固态电池). (25.11.07)

https://it.sohu.com/a/951220346_163726

▶ 지허지(机核姬). 샤오핑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 기술적 혁신과 미래 전망(小鹏新一代机器人发布: 技术突破与未来展望). (25.11.07)

<https://baijiahao.baidu.com/s?id=1846431153968540849&wfr=spider&for=pc>

[지역소개] 하다치 국가자주혁신시범구

개요

국가자주혁신시범구(이하 '국가자주혁신구'로 통칭)는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국가 첨단산업개발구를 기반으로 조성된 지역으로, 자주 혁신을 위한 체제 메커니즘 개혁과 정책 선행 실험을 수행하는 시범 지역이다. 현재까지 국가자주혁신구는 총 23 곳에 달하며, 전국 21 개 성(자치구·직할시)를 포함해 66 개의 국가 첨단산업개발구를 포함하고 있다. 징진지(京津冀), 장강삼각주, 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청위(成渝) 지역 두도시 경제권 등 주요 국가 전략 지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체계적 배치, 중점 발전, 시범 확산, 선도적 견인을 발전 구도 체계로 두고 있다.



하다치 국가자주혁신시범구

2022년 5월 9일, 국무원은 하얼빈(哈尔滨), 다칭(大庆), 치치하얼(齐齐哈尔) 3개의 국가급 첨단기술산업개발구를 국가자주혁신시범구(이하 '하다치(哈大齐) 자주혁신구')로 공식 승인했다. 2023년 기준, 해당 개발구의 생산총액은 1,623억 위안, 첨단기술 기업 수는 1,775개에 달한다. 하다치 자주혁신구는 성 전체 토지의 0.67%에 불과한 면적으로, 전체 경제 규모의 10.2%를 창출하고 첨단기술 기업 40%를 유치하였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이 지역 경제의 고품질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성장 엔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도표 1. 주요 지표

| 구분 | 2022년 | 2023년 |
|---------|--------------|--------------|
| 연간 매출 | 5084.36 억 위안 | 4730.41 억 위안 |
| 순이익 | 123.19 억 위안 | 123.95 억 위안 |
| 총 산업생산액 | 3036.99 억 위안 | 2893.89 억 위안 |
| 총 수출액 | 113.36 억 위안 | 121.10 억 위안 |

하다치(哈大齐) 자주혁신구는 우수한 혁신 플랫폼과 첨단 혁신 자원의 집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자주혁신구에는 국가중점실험실, 국가공정연구센터 등 국가급 혁신 플랫폼 8 곳, 성(省)급 이상 혁신 플랫폼 281 곳(성 전체의 29%)이 구축되어 있다. 또한 중국 항공우주 분야 최초의 대형 과학 시설인 '우주환경 지상 모의 실험장치'가 가동에 돌입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직경 3m 급 로켓 탑재 구조물 대량생산 라인이 중국 최초로 구축되었다.

또한 성(省)-대학 공동 구축 모델을 통해, 자주혁신구 내에 하얼빈공업대 인공지능연구원과 선형연구원 등 첨단 산업혁신 플랫폼이 잇따라 설립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세일오일 개발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육상 세일오일 친환경 채굴 국가중점실험실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다칭(大庆) 유전은 3,000m 급 장거리 수평 시추 및 대편위 시추 기술을 확보하였고, 구룡(古龙) 세일오일 유전에서는 생산정 총 180 개가 가동되고 있다. 또한, 항공우주 첨단장비 미래산업 과학기술단지과 하얼빈 인공지능 발전 시범구가 본격적인 조성을 시작하였다.

하다치(哈大齐) 자주혁신구는 국가의 전략적 수요에 맞춰 항공우주, 국방, 에너지 등 핵심 분야에서 원천기술과 핵심 기술의 자립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 49 연구소가 개발한 압력 센서는 창어(嫦娥) 6 호 귀환 캡슐에 적용되어, 달 뒷면 표본을 싣고 돌아오는 귀환 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하얼빈공업대 위성팀이 개발한 '룽장(龙江) 3 호' 위성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으며, 이를 통해 상업용 위성 산업의 핵심인 '완성위성 제조' 역량의 공백을 메웠다. 제 703 연구소는 저배출 이중연료 산업용 가스 터빈을 개발해, 해외 기업이 독점해오던 핵심 기술 장벽을 넘어섰다.

중차치차(中车齐车, CRRC Qiqihar Rolling Stock)가 개발한 고속철도 구난 특수 크레인은 중국 해당 장비 분야에서 처음으로 기술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중국일중(中国一重)은 500MW 급 충격식 수력 터빈 핵심 부품의 단조 공정기술을 개발하여, 핵심 열가공 기술의 난제를 해결하고 국가 중점 사업에 필요한 핵심 부품의 국산화 기반을 마련했다. 동베이(东北) 석유대학교는 신장-주향이동 복합 단층대에서의 심부 석유·가스 축적 메커니즘과 탐사 기술을 규명하여, 보하이(渤海)만 심부 원유 탐사에서 중요한 전략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연구는 2023 년 국가과학기술진보상 2 등상을 수상했다.

KIC 중국 뉴스

KIC 중국,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진용 원장 일행과 함께 베이징의료산업단지 방문

11 월 5 일,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와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진용 원장 일행은 베이징의료산업단지를 방문하였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의약, 의학 기술전환 분야에서 한중 간 협력 신기회를 모색했다.

1. 중관촌(차오양) 디지털의료산업단지

중관촌(차오양) 디지털의료산업단지에는 113 개 대학과 104 개 창업인큐베이터 등 혁신 요소가 집중되어 있으며, 240 개 디지털 의료 기업과 2,080 개 의료기관이 함께 디지털 의료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쌍허(双鹤), 잉페이이야오(英飞医药), 쥐메이루이옌(菊梅睿研), 머사둥(默沙东) 등 200 여 개 우량 의료 기업이 해당 지역에 집적되어 있다. 또한 단지는 설립 이후 디지털 의료 핵심 분야에 지속 집중하며, 원격진단, 스마트 의료기기 등 분야를 아우르는 우량 기업을 끊임없이 유치해 왔다.



이어 대표단은 단지 내 대표 기업인 보예이쑤(博瑞美素)를 직접 방문해 의료미용, 통증진료 등 분야의 제품과 애플리케이션을 살펴보고 한중 시장 전망에 대해 초기 탐색을 진행했다.

2. 이좡(亦庄) 바이오의약단지

이좡(亦庄) 바이오의약단지는 화학의약, 바이오의약, 중의약, 의료기기 등 분야를 아우르는 '신약 스마트 제조' 기지를 구축했으며, 공유 실험실을 통해 단지 내 기업들에게 전문적인 신약

개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예약 플랫폼과 스마트 스케줄링 시스템을 기반으로 2,000 여 대 이상의 첨단 기기 및 장비 공유도 실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진용 원장은 "단지 내의 공유 실험실 운영 모델은 한의학 관련 연구 성과의 산업화 과정에 중요한 참고 사례로 작용했다. 향후 한중 양측은 한의학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 공유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3. 후이룽썬(汇龙森) 국제기업인큐베이터

국가급 기술기업 인큐베이터인 후이룽썬(汇龙森)은 핵심 경쟁력을 보유한 혁신 기업을 다수 육성해 왔다. 대표단은 해당 인큐베이터 내 기업인 징피용허(经皮永和)와 안과 실험실을 중심으로 시찰하며, 경피 투여 기술과 안과 질환 정밀 치료 등 분야의 연구개발 진척 상황을 자세히 살펴봤다.



방문 의의 및 향후 계획

금번 방문을 이진용 원장은 "베이징 3대 산업단지의 산업 배치, 플랫폼 지원, 혁신 분위기 등이 인상적이었으며 특히 디지털 의료와 생물의약 분야의 융합 발전 모델은 한의학 현대화 전환 과정에 귀중한 경험을 제공해 주었다"고 평가했다.

한중 양국 기간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는 향후 한중 기업 간 기술개발 협력, 시장 공동 확대, 자원 상호 공유 등 분야에서 보다 심층적인 협력 관계가 구축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양국 헬스케어 산업의 공동 협력 발전을 적극 촉진할 예정이다.

KIC 중국 GSF 포럼 개최



2025GSF(웨이강오대만구포럼)포럼 한국혁신기업K-Demo Day(수소산업)

🕒 2025/12/07 14:00

📍 광저우난사국제컨벤션센터

협력기관

주최기관 (한)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KOSTC)
(중)광둥성과학기술연구원(GSTMR)

협력기관 (한)IBK기업은행,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KHNES),
수소지식그룹,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서울경제진흥원(SBA), 경북테크노파크,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중)광둥과학기술협력혁신센터, 중카이계전자공정학원,
광둥성경제연구발전센터, 광둥성전진발전추진회,
광둥성생산력혁신센터, 난하이과기국, 광둥성과학기술혁신회,
센후실험실

후원기관 (한)한국연구재단,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중국한국상회
(중)광둥성과학기술, 광둥성과학기술협회, 광둥성과학원

행사소개

“웨이강아오대만구과학포럼(Greater Bay Area Science Forum, GSF)”은 ‘일대일로’ 국제과학기술연맹(ANSO)의 발족에 따라 중중과학기술부와 광둥성 인민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국가급 과학기술 포럼으로, 매년 광저우시에서 개최됩니다.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는 한국 기관으로서 최초로 2024년 GSF 포럼에서 한중 기업협력 프로그램을 주관하였으며, 11개 수소산업 관련 기업이 참여하여 로드쇼 및 산업시찰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 풍부한 협력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가오는 2025 GSF(웨이강아오대만구과학포럼)은 12월 6일부터 개최될 예정이며, KIC 중국은 코스텍, 광둥성 과학기술청, 광둥성 과학연구원과 협력하여 ‘한국혁신기업 로드쇼 K-Demo Day’ 분과포럼을 공동 주최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한중 기술협력 강화와 산업 발전 촉진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저우시난사구인악로



QR코드 스캔 후 참여 신청

미. 행사일정 / CONFERENCE SCHEDULE

오후

AFTERNOON

- 13:30—14:00 ● **등록 및 입장**
행사 참석 안내 및 행사 배포
- 14:00—14:05 ● **오프닝**
진행자
- 14:05—15:30 ● **귀빈 축하 및 전문가 주제강연**
수소산업에 관한 인사이트
- 15:30—17:30 ● **혁신기업 기술발표**
기업기술발표 및 시나리오 적용 발표
- 18:00—20:00 ● **한중기업가교류만찬**

02. 산업시찰 일정 / INDUSTRIAL VISIT SCHEDULE

| 시간 | 일정 | 비고 |
|------------|--|------------|
| 2025.12.07 | 오전: 난사국제컨벤션센터 도착 오후: 2025GSF포럼-한국혁신기업로드쇼 | K-Demo Day |
| 2025.12.08 | 포산시난하이구 *수소 관련 산업단지 및 기업 *난하이 보급형 스마트 수소에너지 시범단지 | 산업시찰 |
| 2025.12.09 | 광저우 *수소 관련 산업단지 및 기업 | 산업시찰 |

03. 기업기술발표 / TECHNOLOGY SHOWCASE COMPANY

HONGWORKS

수소연료전지의 성능, 내구성 향성을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인 수소 공급/재순환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부품, 모듈을 제조하는 운전장치(BOP) 전문기업

THE CARBO

수소에너지 섹터의 소재 전문기업으로, 탄소 나노아키텍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수소연료전지(PEMFC) 및 수전해(PEMWE)용 전극 소재와 촉매 솔루션을 개발과 상용화 하는 기업

HydroXpand

음이온 교환막(AEM) 수전해 기술을 기반으로 고효율 · 고내구 수소 생산 장비를 개발 · 제조하는 닷테크 기업

H3KOREA

무촉매 수전해 기술을 개발해 그린수소 시장에 혁신을 가져온 기업이며, 고가의 희귀 금속 촉매나 분리막, 전해질 없이도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NICE 공법이 핵심

EFLOW

마이크로 모빌리티 파워트레인 전문 스타트업으로, 고효율, 고성능 모터와 ECU 개발에 특화되어 있으며, 제한된 규격 내에서 최대 출력과 에너지 효율, 경량화 기술이 요구되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을 주요 타겟

Sleno

수소 압축기, 산업용 공기압축기, 그리고 AIoT(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반 수소 안전모니터링 및 예지보전 시스템을 핵심 기술로 하여, 스마트 에너지 · 스마트시티 분야의 첨단 솔루션을 제공

(주)한국나노오트

수중 플라즈마(Submerged Plasma)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나노소재를 연구 · 개발 · 양산하는 기술기업

XYREX

고에너지 분쇄 · 분산 · 혼합 장비(High Energy Mill, Bead Mill) 전문기업으로, 리튬이온전지용 소재 생산 장비를 시작으로 첨단 분체공정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

HySensor Ltd.

2024년 1월 중관촌에 등록된 신생 기술 기업으로 회사는 수소 분석 센서 분야의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한 생산 설비를 구축 중

KIC 중국 창업대회 개최



2025 KIC 중국 창업대회

12대 국가전략기술

2026.03.19 CHINA·BEIJING

주최 / 주관

후원기관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중국한국상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참가신청 2025년 12월 01일(월)~2026년 1월 30일(금)

- 우측 QR코드를 스캔하여 접속
- QR코드 스캔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info@kicchina.org



대회일정

| | |
|-------------------|---|
| 26.02.03~26.02.10 | 내·외부 심사 |
| 26.02.11 | 결승진출자(팀) 공지 |
| 26.02.11~26.03.06 | 결승진출자(팀) 1:1 멘토링 <small>(창업계획서 작성, 중국진출전략 및 발표방법 등 멘토링)</small> |
| 26.03.19 | 2026년 <KIC중국 창업대회> 결승전 개최 <small>(기업당 10min발표+5min Q&A) 대회인어: 한중등시흥역</small> |

지원혜택

1. 기업 1인에 한해 왕복 티켓 및 대회 기간 동안 숙박 제공
2. 한중 투자기관 네트워킹 지원
3. 중관촌포럼, 푸장혁신포럼, 대만구과학포럼, HICOOL 글로벌 창업대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
4. 결승진출 전 1:1 멘토링 지원 등
(세부 지원사항 큐알코드 스캔하여 확인 바람)

후원기관

(한) KIST INNOVATION, 서울경제진흥원(SBA), 경기과학진흥원(GBSA), 한국벤처투자 중국사무소(KVIC), 한국투자파트너스, IBK창공,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GDIN), 한양대학교 ERICA, 중국한국상회,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KTPA) 등

(중) 중관촌과학성, 상하이기술거래소, 중국국가기술이전동부센터, 중한햇불혁신센터, 텐진경제기술개발구(TEDA), 쑤저우공업단지, 청두고신구과학혁신국, 절강성산학연속진회, 광둥성과학관리연구위원회, TOJOY투자그룹, Haier하이창후이, 시노팩은택펀드, 중관촌국제인큐베이터, HICOOL, TUS Northeast Asia Group, HYUNDAI CREATIVE ACCELERATOR 등

행사 정보

| 명칭 | 기간 | 장소 | 분야 |
|--|-----------------------|-----|--------|
| 2025 년 제 17 회 중국(우시) 신에너지 컨퍼런스 및 전시회 | 2025.11.13-2025.11.15 | 우시 | 에너지 |
| 2025 년 제 22 회 중국 남서부(쿤밍) 국제 자동차 엑스포 및 지능형 연결 및 미래 모빌리티 자동차 엑스포 | 2025.11.13-2025.11.17 | 쿤밍 | 자동차 |
| 2025 년 제 27 회 중국 국제 첨단기술 성과 박람회 | 2025.11.14-2025.11.16 | 선전 | 첨단기술 |
| 2025 년 제 32 회 상하이 국제 전력 장비 및 기술 박람회 | 2025.11.18-2025.11.20 | 상하이 | 에너지 |
| 2025 년 제 15 회 면양 국제 오토쇼 | 2025.11.20-2025.11.24 | 면양 | 자동차 |
| 2025 년 제 12 회 중국 국제 자동차 기술 전시회 | 2025.11.20-2025.11.22 | 광저우 | 자동차 |
| 2025 년 제 23 회 광저우 국제 자동차 박람회 | 2025.11.21-2025.11.30 | 광저우 | 자동차 |
| 2025 년 제 12 회 광저우 국제 자동차 부품 가공 기술 및 자동차 금형 전시회 | 2025.11.21-2025.11.24 | 광저우 | 자동차 |
| 2025 년 제 8 회 선전 국제 배터리 기술 전시회 | 2025.11.24-2025.11.26 | 선전 | 에너지 |
| 2025 년 전력 안전 및 비상 기술 컨퍼런스(EPSET 2025) | 2025.11.27-2025.11.29 | 포산 | 에너지 |
| 제 5 회 기계 자동화 및 전자 정보 공학 국제 학술 대회 (MAEIE 2025) | 2025.11.27-2025.11.29 | 닝보 | 기계 자동화 |
| 제 2 회 인공지능, 디지털 미디어 기술 및 인터랙션 디자인 국제 학술대회(ICADI 2025) | 2025.11.28-2025.11.30 | 톈진 | 인공지능 |
| 제 6 회 컴퓨터 공학 및 지능 통신 국제 심포지엄(ISCEIC 2025) | 2025.11.28-2025.11.30 | 충칭 | 컴퓨터 공학 |
| 제 5 회 알고리즘, 고성능 컴퓨팅 및 인공지능 국제 학술 대회(AHPCAI 2025) | 2025.11.28-2025.11.30 | 난창 | 인공지능 |

KIC 중국 주간 중국 창업

www.kicchina.org

info@kicchina.org로 구독 신청하시면 매주 중국의 다양한 창업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위챗 공식계정



네이버 블로그와 위챗 공식계정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발행처: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
센터장: 김종문
전화: +86-10-6780-8840
메일: info@kicchina.org